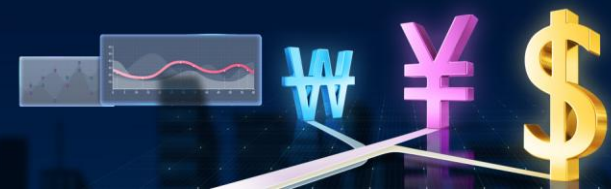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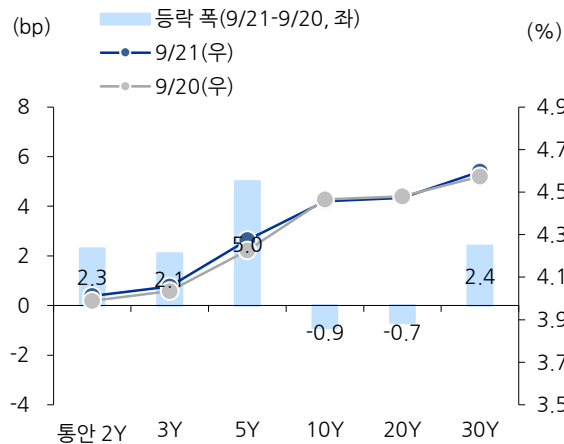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FX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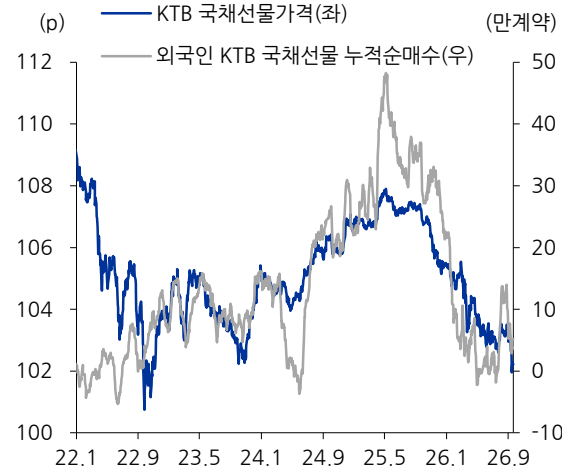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	9/21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4.056%	2.1	3.1	110.3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457%	-0.9	-7.9	107.2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0.1	43.1	51.1	43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2.22	-7.0	-46.0	-322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4.07	17.0	16.0	-885.0
	미국채 2년물	4.750%	0.3	9.0	127.8
	미국채 10년물	4.953%	-4.4	-3.7	78.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20.3	25.0	32.9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459%	-6.6	-6.9	60.4
	호주국채 10년물	5.283%	1.7	-5.3	53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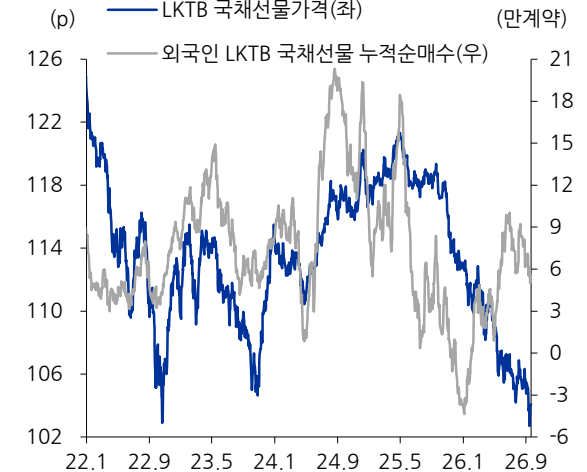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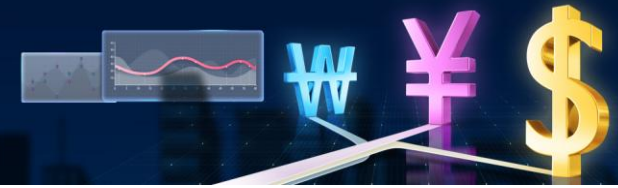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베어 플래트닝 마감.
- 간밤 미국 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금리는 별 다른 국내 요인 없는 가운데 좁은 범위내 등락. 글로벌 인상 기조 및 간밤 프랑스 재정 우려 등 영향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우세. 국고채 5년 입찰을 앞둔 공급 부담도 상존.
- 다만 아시아 장에서 국제유가 하락세 및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이어지면서 금리 상승폭 제한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장단기 방향성 엇갈리며 커브 플래트닝 마감.
- 미국과 이란 간 대화 가능성에 국제유가 소폭 하락하며 뉴욕 증시 랠리 확대. 인플레이션 우려 경감으로 장기 금리 하락했으나 단기금리 상승세는 지속됨. 위험자산 선호와 함께 경기 견조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감 반영.
-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도 영향. 굴스비 총재는 공급 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나 강력한 수요도 물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.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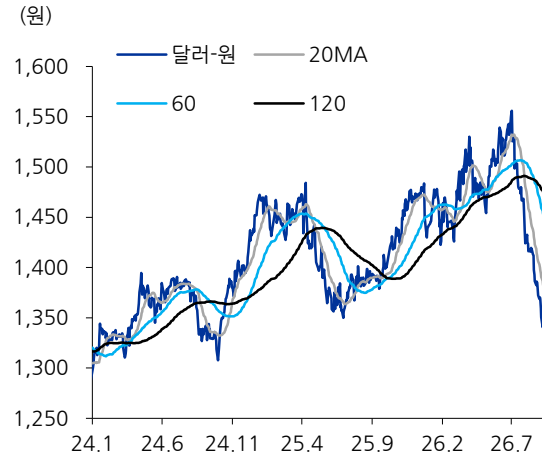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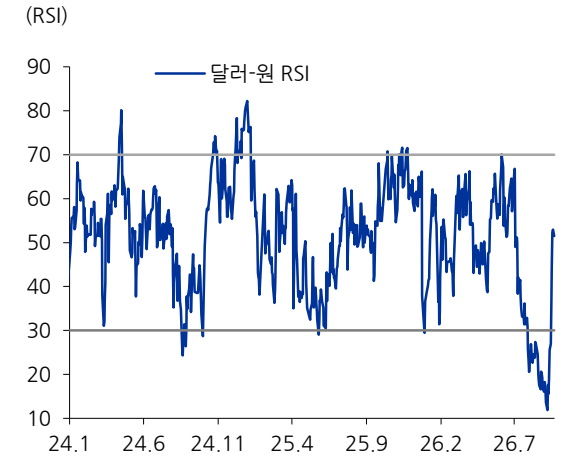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9/21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81.00	-0.2%	2.5%	-4.0%
	달러지수	100.42	0.2%	0.9%	2.2%
	달러/유로	1.15	-0.2%	-0.7%	-2.4%
	위안/달러(역외)	6.69	0.0%	-0.2%	-4.2%
	엔/달러	157.35	0.3%	1.9%	0.5%
	달러/파운드	1.34	-0.2%	-1.0%	-0.7%
	헤알/달러	5.11	-0.6%	-0.8%	-7.4%
상품	WTI 근월물(\$)	95.78	-4.5%	-5.5%	66.8%
	금 현물(\$)	4,342.93	-0.6%	1.0%	0.6%
	비트코인(\$)	86,590	6.1%	9.4%	-1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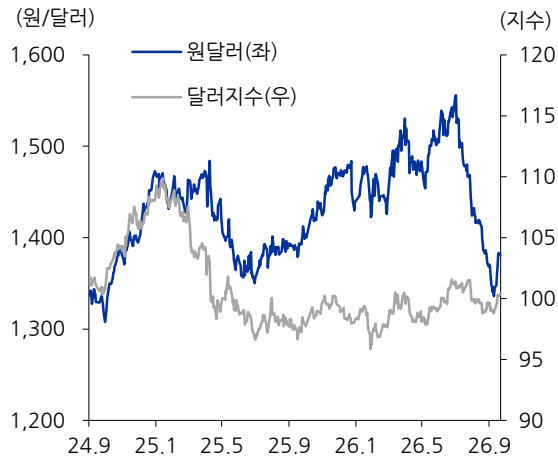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박스권 흐름 속 -2.30원 내린 1,381.00원 마감(야간 1,374.50원).
- 지난주 금요일 BOJ 레이트체크가 있었다는 보도에 日 외환당국 개입 경계 속 박스권 흐름.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꾸준히 출회되며 원달러 환율 하락을 이끌었으나 결제 유입되며 하단 지지.
- 달러-엔은 일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예상보다 완화적이었던 BOJ 영향 이어지며 소폭 상승.
- 야간거래에서 달러 상승하고 엔화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달러-원은 -6.50원 추가 하락. 9월 FOMC, BOJ 금정위 마무리되며 변동성 완화되는 가운데 수출업체 달러 매도에 따른 하방 압력 재차 부각될 가능성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유가 하락에도 연준 인사 매파적 발언에 상승(DXY +0.2%)
-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이란 폐제시키안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미-이란 긴장 다소 완화됐고, 사우디가 홍해 수출 차질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 늘리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급락(WTI -4.5%).
- 다만 굴스비 총재가 수요가 과열된다면 연준의 대응에는 모호함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연준 추가 인상 기대 유지되며 달러 상승을 지지.